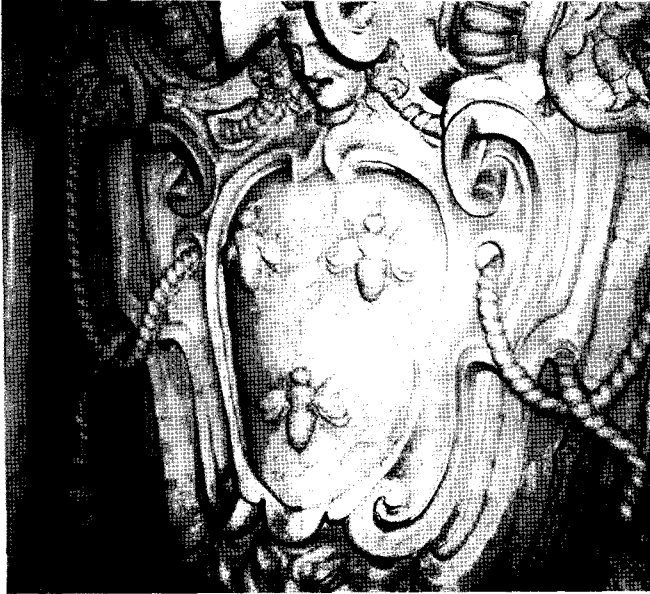


세계의 문화유산 '성베드로 성당' 건물에 '일(Work)'을 상징하는 꿀벌상들이 새겨진 의미?



사진제공 : 김재길(1995)

임신한 여인의 복부를 의미한 조각상에는 "일(Work)"을 상징하는 꿀벌 세 마리가 얹혀있다.



사진중 꿀벌 두 마리는 여왕벌로서, AD 315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를 상징한다고

럼 구원사업을 위하여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적지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 건물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 속에 벌꿀상도 있어서 궁금중에 바티칸 교황청에 문의편지를 보내더니 아래와 같은 사진설명이 붙은 답장 편지가 도착했다.

1,624년~1,633년에 세워진 우르바노 8세 교황의 문장으로서 조각가 베르나(Le Bernier)가 조각했다.

꿀벌은 "일"을 상징(symbol)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황의 가족들은 직물을 짜는 장색(匠色)이었다 한다. 당시 교황의 조카딸이 임신 중이었는데 조각가 베르나는 교황의 문장을 새기면서 임신한 여인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여인의 얼굴을 조각했다. 사진에는 안나왔지만 얼굴의 여러 표정들 즉, 평온함과 피로움, 고요함, 임신한 여인, 그리고 출산할 때 여인들이 경험하는 표정 등을 그렸다. 사진 중에 꿀벌 세 마리가 올라붙은 조각상은 임신한 여인의 복부가 된다. 이것은 아기를 분만하는 고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해산의 고통을 뜻하고 있다.

베르나는 사도 바오로(St. Paul)의 말씀<로마서 8장 22장>에 암시를 받아 "이 세상은 아기를 낳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R. 822 = 모든 피조물은 지금까지 다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즉 이 세계는 더욱 더 좋은, 나은 세계, 행복한 세계, 새 하늘을 낳는 데 피로워하고 있다는 의미로 새 세상을 잉태하는 교회, 이 세계의 모습이다.

꿀벌은 '부지런함'의 상징이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염원하면서 십자가의 길,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교회가 꿀벌처럼